



성낙송(21기)



정종진(20기)



류재열(19기)



강진남(18기)

# 벨로드롬의 최고 루키는 나!

## 4~6일 광명스피드서 '2015 신예왕전'

성낙송·류재열 등 18~21기 간판 총출동  
10연승 정종진, 가장 유력한 루키킹 후보

"짧은 피들이어 모두 모여라. 최고의 루키를 가리자."

벨로드롬 최고의 루키들이 '루키킹'을 놓고 한 판승부를 벌인다. 성낙송, 정종진, 류재열, 강진남 등 18~21기의 젊은 피관스타들이 총출동하는 '2015 신예왕전'이 4일부터 6일까지 광명스피드에서 열린다. 막내급 루키들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다. 말이 루키들이지 이미 훌쩍 성장한 대어들의 전성이다. 4일(금) 예선을 거쳐 5일(토)엔 준결승전이 이어지고 6일(일)엔 대망의 '최고 루키'를 가리는 결승전이 열린다.

이번 대회는 누가 과연 미래 경륜의 최고 루키냐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기수별 대항전 성격도 함께 띄고 있어 참가 선수들은 물론 경륜 팬들의 큰 관심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와 달리 요즘 경륜은 힘과 기술을 겸비한 신인들이 데뷔 초반부터 선배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추세다. 따라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인들의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챔피언의 경우에는 연말 그랑프리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예왕'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훈련원을 졸업하고 올해 7월 데뷔한 21기 가운데는 졸업성적 1~3위인 성낙송(25)배정현(27) 황인혁(27) 세 선수가 나란히 출전한 다. 훈련원 시절부터 '거물급 기대주'이었던 성낙송은 7월 3일 '21기 신인왕전'에서 우승하면서 본격적으로 두각을 보였다. 이어 두 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동기 중 가장 먼저 특별승급으로 특선급에 진출했지만 특선급 합류 후 치른 첫 경주에서 참패하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하지만 200m 기록이 10초대로 수퍼특선급 선수 못지 않아 지난해 신인왕전에 이어 다시 한 번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0기에서는 역시 수석졸업생 정종진(28)이 가장 돋보인다. 신예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버린 그는 난 6월 이사장배 우승 이후 두 달간 10연승의

무패행진으로 '폭주 기관차'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이번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을 제물삼아 또 한 번 우승을 일궈낸다면 올 시즌 상승기도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종합랭킹 5위까지 올라와 있다.

류재열(28)은 19기 에이스다. 그 역시 훈련원을 수석 졸업했다. 데뷔 후 두 경주 만에 특선급에 올랐을 만큼 기량이 뛰어난 선수다. 아마추어 시절 경륜 강자답게 3년간 꾸준히 상위권에서 활약하고 있다. 랭킹 18위다.

여기에 지난해 22위에서 올 시즌 12위까지 상승하며 상승세인 18기 강진남(28)은 다크호스다. 21승으로 다수부분 공동 6위인 그는 강력한 우승후보인 정종진과 역대전적에서도 4승 3패로 앞서있을 만큼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로 꼽힌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마케팅팀 김동환 차장은 "이번 대회는 역대 훈련원 수석 졸업생들 간의 대결만으로도 흥미로운 경기가 될 전망이다. 과연 어떤 기수 수석졸업자가 챔피언에 오를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세호 기자 sol@donga.com

## '추격자' 어선규 '쫓기는 자' 김효년

'7연승' 어선규, 선두 김효년에 4승차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추격자' 어선규의 2년 연속 경정기를 향한 돌진이 무섭다. 지난해 그랑프리 챔피언 어선규(37·4기)가 랭킹 1위 김효년(41·2기)을 맹추격하고 있다. 올 시즌 초반 김효년의 가파른 상승세에 밀려 '반쪽 스타'에 그칠 뻔했던 어선규는 7월 이후 그랑프리 챔피언급에 매회 최강자다운 실력을 뽐내며 최근 들어서는 김효년의 아성까지 무너뜨릴 기세다.



그랑프리 챔피언 어선규가 지난 27일 13경주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어선규는 지난해 3연승을 기록했다.

### ●어선규, 지난해 3연승·최근 7연승...김효년과 4승차

어선규는 여름사이였다. 날씨가 더울수록 그의 경기에 대한 열정은 태양보다 더 뜨거웠다. 어선규의 뛰어난 경기력은 지난해에도 돋보였다. 2주 만에 미사리 경정장에 등장한 어선규는 총 3회 출전해 세 경주 모두 승리를 낚아챘다. 무려 7연승째 무서운 돌진이다.

코스도 가리지 않았다. 1코스에서 우승은 당연했고 다소 불리한 4, 5코스에서 출발했더라도 노련미를 발휘하며 휘감기, 휘감아 찌르기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승리를 엮어냈다. 어선규의 기술을 보여주는 '리사이틀' 같았다. 지난해 출전하지 않은 김효년이 어디선가 지켜봤다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경기력이었다.

상반기만 해도 올 시즌은 김효년의 독주가 예상됐다. 그도 그럴 것이 시즌 초반 출전하면 한 회차에 3~4승씩은 기본으로 쓸어 담았다. 이 같은 상승세는 경쟁자들을 주눅 들게 했고 이는 그의 무패대로 이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랑프리 챔피언 어선규의 저력은 낭중지추였다. 7월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김효년의 상승세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올 시즌 둘의 맞대결에서 어선규가 김효년에 4승 2패로 앞선 것만 보더라도 어선규의 무게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3연승을 보태면서 어선규는 최근 한 달간 7연승을 질주하며 지지해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

다. 24승째를 올리며 28승인 김효년에 4승차로 바짝 추격 중이다. 요즘 그의 경기력을 보면 다시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다. 지난해 39승으로 다승왕에 오른 이후 올해도 2연패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 ●이제 4개월 남았다...어선규 vs 김효년

이제 다급해진 쪽은 김효년이다. 물론 4승차 우위를 지키는 김효년이 종합 랭킹 1위를 사수하고 있기는 하나 맹렬히 추격해오는 어선규를 생각하면 자라기도 밥먹 일어날 만큼 불안감이 엄습할 듯하다. 쫓는 자보다 쫓기는 자가 더 불안한 법. 김효년으로서도 하반기 어선규의 추격의 지를 어떻게 꺾을지에 대한 전략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4개월간 라이벌 두 선수간의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올 시즌 경정은 김효년과 어선규 두 스타선수간의 자존심 경쟁만으로도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정 관계자는 "올 시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정에 김효년과 어선규 두 선수간 라이벌전이 흥미를 더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경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연세호 기자

## 경륜경정사업본부, 다문화가족 합동 결혼식 지원

### 4일 경정공원에서 다섯 쌍 합동 결혼식 기금급 500만원·결혼식장 무료 대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 열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오는 4일 오전 11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공원 1층 관람동에서 다문화가족 다섯 쌍의 합동 결혼식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교범 하남시장

과 김승용 하남시의회의장, 이현근 경정운영단장을 비롯해 축하하게 300여명이 참석해 이들의 앞날을 축하해 줄 예정이다.

당초 6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마르스 사태로 연기된 이번이 열리는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중국 두 쌍, 캄보디아 두 쌍, 베트남 한 쌍 등 총 다문화가족 다섯 쌍이 화촉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그동안 가정을 이루고도 경제적 문제를 비롯해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열지 못한 다

문화가정으로 경정측은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500만원의 기금과 함께 결혼식장도 무료로 대관한다.

경정은 지난 2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남지역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해 예식장을 무료 개방하고 예식비 등을 지원해 왔다. 경정장내 공연시설로도 활용되는 미사일은 주례단상, 신부대기실, 폐백실은 물론 200석 규모의 하객용 의자와 기타 예식 부대시설 등을 갖췄으며, 예식장으로 개방되는 경정 관람동 1층에는 구내식당도 있어 피로연도 가능하다. 연세호 기자

## 두 바퀴로 달리는 시각장애인 '위대한 도전'

### 5일 '테템사이클 라이딩 대행진' 출정식

'장애는 없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시각장애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뚫고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 시각장애인 10명과 비장애인 자원봉사자 30여명이 두 바퀴를 굴리며 아름다운 국토의 숨결을 느낀다.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테템사이클 라이딩 대행진'이 그것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도전 뒤에 경륜이 묵묵히 자리 잡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오는 5일(토) 광명스피드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테템사이클 라이딩 대행진' 출정식을 갖는다. 경륜의 사회공헌 사업인 '희망 리스타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5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본격적인 라이딩이 펼쳐진다. 라이딩은 광명스피드를 출발해 오는 7일까지 2박 3일간 한강자전거길, 군산과 공주를 거쳐 세종시를 지나 대전 대청댐까지 자전거 전용도로 170km를 달리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테템사이클이라 불리는 2인용 자전거에 동승해 앞좌석에는 비장애인이 뒷좌석에는 시각장애인이 타 호흡을 맞춰 동시에 페달을 밟아가며 목표에 도전한다. 짧게는 하루에 20~30km에서 많게는 90km를 달리며 1일 평균 3~4시간 내외로 라이딩을 벌인다.

광명시 시각장애인 10명을 포함해 광명시 자전거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지난해 열린 '2014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테템사이클 라이딩 대행진'.

이번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첫날 스피드에서 동강대교까지 24km 구간을 라이딩하며 땀을 뚫 뒀 군산으로 이동한다. 이어 이틀남 금강하구둑→공주 91km 구간 도전에 나서고 마지막 날 공주에서 대청댐에 이르는 54km를 끝으로 라이딩을 마무리한다.

경륜은 이번 시각장애인들 도전의 성공을 위해 테템사이클 제작비 등 2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륜은 지난해 인천 장애인사이클대회에서 우리 대표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준 김종규(31) 전대홍(39) 사이클팀에 대회 출전에 앞서 테템사이클 제작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륜관계자는 "지난해는 인천장애인경기대회를 앞두고 전문 장애인 사이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게 목표였다면 올해는 일반 시각장애인들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세호 기자

## 경정 출주표 | 2일

우승후보 ●우승순전 ○상대 △복병 3일

Table with 10 columns: Round, Rank, Name, Age, Record, etc. for various cycling events.